

# 五倫行實圖 研究

—近世語研究의 一環으로—

南 廣 祐\*

## 1

필자는 敬信錄諺釋 研究 —樂善齋文庫 新資料를 가지고 近世語研究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sup>1)</sup>와 —近世語研究 樂善齋文庫 新資料를 중심으로—<sup>2)</sup>와 女四書研究 —近世語研究의 一環作業의 하나로—<sup>3)</sup>가 있고 翻譯老乞大 解題<sup>4)</sup>를 한 바 있다. 敬信錄諺釋은 正祖 20년(嘉慶丙辰仲秋 1796년)에 近世語研究를 함에 있어 研究對象으로 한 洛城飛龍이 17C末~18C初, 山城日記가 英祖年間(1725~1776년), 麟鳳詔는 憲宗~哲宗(1835~1863) 무렵, 女四書는 英祖 12년(1736년)에, 翻譯老乞大를 解題함에 있어 比較資料로 쓴 老乞大諺解는 顯宗 11년(1670년)刊이므로 이 네 作業은 각각 近世語研究의 一環作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五倫行實圖는 三綱行實圖와 二倫行實圖를 합해서 만든 책으로 5권 4책으로 되어 있다. 李秉模 등 奉敎校閱, 이 글에 收錄된 사람은 모두 150名으로서

孝子	33명	忠臣	35명
烈女	35명	兄弟	24명
宗族	7명	朋友	11명

\*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長겸 師範大學長.

- 1) 「국어국문학」 49·50호 合併號 70. p. 30 拙著「國語學研究」 pp. 58~76再錄 宣明化社 75. 8. 15.
- 2) 「亞細亞研究」 41호 71. 3. 31. 拙著「國語學研究」 pp. 11~58再錄.
- 3) 「李崇寧先生 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pp. 51~67 塔出版社 77. 7. 22.
- 4) 老乞大下 仁荷大附設 人文科學研究所 1975.



밋을소냐(밋을소냐) 밋어(밋어) 밋으랴(밋으랴)

와 같은 받침 表記가 있었는데 이 五倫行實圖에는

긋이(긋이 固 2:33) 낫이면(낫이면 4:32)

뭇은(뭇은 4:33) 빗이(빗이 4:38)

와 같은 表記를 보이고 있다.

#### 2.4. 體言과 토의 구별 表記實態

ㄱㄴㄷㅁㅂㅅㅇ의 七終聲과 리받침 붙은 말은 漢字말이나 固有語에 있어서 完全名詞는 토와 구별해 적어 있어 敬信錄彙釋의 경우와 一致한다.

곡식<sup>을</sup> 가산(家産)<sup>을</sup> 괴물(器物)<sup>은</sup> 남(南)<sup>으로</sup> 법(法)<sup>을</sup> 빅성이.....  
손가락<sup>을</sup> 남군<sup>을</sup> 말<sup>을</sup> 힘<sup>을</sup> 집<sup>으로</sup> 곳<sup>에</sup> 뜻<sup>을</sup> 스승<sup>은</sup> 흙<sup>을</sup> 습<sup>이</sup>.....

그러나, 리받침이 붙는 말의 경우

곳<sup>을</sup> (1:9) 곳<sup>에</sup> (1:19) 곳<sup>이</sup> (1:33) 뜻<sup>을</sup> (1:21) 뜻<sup>으로</sup> (1:40) 뜻<sup>을</sup> (1:50)

와 같은 分綴例가 있는데 反해

비<sup>오</sup>을 (1:5) 오<sup>서</sup>려 (1:25) 오<sup>사</sup> (1:29) 오<sup>스</sup>로 (1:42) 모<sup>을</sup> 뜯<sup>며</sup> (2:1) 모<sup>시</sup>  
(2:55) 부<sup>을</sup> (2:50) 옷<sup>기</sup>서 (2:50) - 그<sup>르</sup>을 (1:52) 므<sup>어</sup>을 (1:66) 다<sup>스</sup>시  
(1:41)...

와 같은 連綴例를 오히려 많이 보임은 洛城飛龍이나 山城日記의 表記例와 一致하는 것이라 하겠다.<sup>5)</sup>

不完全名詞의 경우

스<sup>심</sup>일<sup>만</sup>에 (3:50) 팔<sup>심</sup>일<sup>만</sup>에 (2:45)  
뭇<sup>하</sup>는<sup>을</sup> (2:38) 뭇<sup>하</sup>를<sup>을</sup> (2:48)  
모<sup>르</sup>는<sup>을</sup> (2:57) 밥<sup>먹</sup>을<sup>적</sup>이면 (4:49)

와 같이 ‘만, 즐, 적’은 토와 分綴을 하면서

사<sup>니</sup>코<sup>티</sup>하<sup>니</sup> (1:27)

5) 拙稿「近世語研究」拙著「國語學研究」p. 54.

의 ‘이’나 ‘것’은 連綴이 되어 있다.

드론저울(1:9) 거시라(1:12)  
거시로터(1:33) 거손(1:5)……

와 같이 ‘것’은 例外없이 토와 連綴되어 있는데 敬信錄諺釋이나 洛城飛龍·  
出城日記·女四書와 一致한다.

名詞形의 경우,

섬기울(1:4) 섬기미(2:58) 우름소터(1:5) 슬프울(:4) 마르차울(1:39) 붓  
그라오미(2:58) 날오울(2:58) 죽으울(2:48) 도라카미(2:42) 스모항울(1:  
4) 채항은(2:58) 굽호미(1:11)……

와 같이 名詞形의 添用(曲用)이나 ‘하다’接尾辭가 붙어 이루어진 名詞形의  
添用도 連綴되어 있는데 이것은 敬信錄諺釋이나 洛城飛龍·山城日記가 모두  
同一하다.

現行맞춤법 表記方式에 따르면 七終聲 以外の 받침으로 表記된 말의 表記  
實態는 다음과 같다.

ㅅ……밤낮으로(1:11) 낮이면(4:32) 나른하며(蠶, 1:54)  
ㅈ……늦빛출(1:39) 늦빛출(1:62) 늦초로(2:50) 늦취(2:38) 늦출(1:33)  
ㅊ……맞티(4:29) 맞출(4:29) 맞히(1:44) 맞출(1:4)  
          것히(1:35)  
          맞히(1:43)  
ㅊ(四)……알피(1:44) 님히(1:44)  
ㅊ……남기(1:5) 남글(1:16) 쥐꿈글(2:12)  
ㅊ……맞과(1:4)  
ㅎ……길히(1:18) 나라히(1:4) 네히(3:13) 사흐로(4:53) 들히(2:63) 들  
          홀(3:13) 들히(1:56) 세홀(1:44) 우히(1:13) 코히(3:21) 하나흔  
          (2:50) 하나트(2:33)

## 2.5. 用言의 語幹과 語尾의 구별 表記 實態

구별 使用例

먹으며(1:4)죽은(1:4) 썩어(1:33) 안아(抱, 4:57) 살아서(1:4) 일어죽는  
(1:41) 늙으니(1:32) 늙어(1:32) 삼으리오(1:19) 심으며(1:42) 점으며  
(1:43) 잡아가려(1:19)

## 連綴例

안즈며(앉으며 1: 4) 버더가디(번어가디 1: 35) 바든가(받은가 1: 39) 도라가  
 (돌아가 1: 5) 사라(살아 2: 3) 드룩시고(聽, 1: 4) 불근(붉은 1: 56) 울므  
 니라(울으니라 1: 52) 울마(움아 1: 15) 율허(움어 1: 61) 심거(1: 27) 버서  
 날디라(벗어날지라 1: 32) 버스리오(벗으리오 1: 40) 버서(벗어 1: 46) 업손  
 (없은 1: 9) 업스니(없으니 1: 22) 마자(迎, 맞아 1: 32) 술을 비저(빛어 1:  
 37) 츠즈며(찾으며 1: 51) 조춘(쫓은 1: 4) 갑흐리라(값으리라 2: 57) 빠흐며  
 (쌍으며 1: 4) 노흐니(놓으니 1: 33)

以上에서 보면 語幹과 語尾의 구별 表記例는 七終聲에 限하는데 七終聲  
 중에서도 ㅅ받침 붙는 말은 連綴로 되어 있어 마치 ㅅ받침 붙는 體言과 토  
 가 分綴된 例를 약간 보이면서도 오히려 連綴例를 많이 보이고 있음과 相通  
 하는 表記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七終聲 붙는 말 중 ㅅ받침 붙는 말이 連綴로 되어 있는 것은 敬信  
 錄諺釋(버서 써서 써스며) 洛城飛龍(소삿고 버서더 썸스니) 山城日記(아사  
 奪)와 一致한다.

2.6. 派生動詞의 接尾辭 ‘-이 -히’ 등을 구별해 적은 實態는 다음과  
 같다.

먹이<sup>으</sup>고(1: 65) 죽이<sup>니</sup>라(2: 2) 속이<sup>고</sup>(2: 72) 넓히<sup>면</sup>(1: 51) 막히<sup>여</sup>(3: 50)  
 넓히<sup>고</sup>(1: 2) 넓히<sup>더</sup>니(1: 2) 잡히<sup>여</sup>(1: 39) 사로잡히<sup>여</sup>(2: 33) 벗기<sup>라</sup>(1: 40)  
 살오<sup>면</sup>(3: 58)

와 같은 表記가 있는 一面

일컫는<sup>더</sup>(1: 56) 소길(속<sup>일</sup> 2: 9) 깃드<sup>려</sup>(1: 43)

와 같은 連綴例가 있다. 이것은 敬信錄諺釋에도

일키<sup>미</sup>라

의 連綴例가 있음과 같다.

2.7. ‘-하다’가 붙어서 되는 用言의 語源의 語根에 ‘-히’나 ‘-이’가 붙어  
 서 副詞가 된 것은 그 語源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 같다.

語根未音이 母音……가히(1: 4) 고이<sup>히</sup>(3: 33) 괴이<sup>히</sup>(4: 45) 구차<sup>히</sup>(2: 75)  
 귀<sup>히</sup>(1: 15) 괴이<sup>히</sup>(1: 39) 무도<sup>히</sup>(4: 17) 무수<sup>히</sup>(2: 68) 후<sup>히</sup>(3: 3)

- 語根末음이 ㄱ…………명백히(2: 63) 부족히(4: 47) 족히(3: 24) 지극히(3: 49)  
 착히(5: 25) 편벽히(1: 47)  
 기특이(1: 41) 석석이(1: 39)
- 語根末음이 ㄴ…………개연히(2: 52) 극진히(3: 50) 순히(1: 49) 신근히(5: 20)  
 친히(1: 45) 홀연히(3: 23) 확연히(1: 54)  
 ㄱ만이(2: 72) 불연이(2: 38) 평안이(2: 27) 홀연이(1: 35)
- 語根末음이 ㄷ…………특별이(4: 25) 황홀이(1: 54)
- 語根末음이 ㅁ…………감히(2: 72) 심히(2: 72) 외람히(4: 7)
- 語根末음이 ㅂ…………급히(1: 54) 의법히(依法, 1: 40)
- 語根末음이 ㅅ…………능히(1: 19) 민망히(4: 17) 성히(1: 39) 정히(淨, 2: 54)  
 종용히(2: 43) 황망히(2: 77)  
 다형이(1: 54) 맛당이(2: 20) 무상이(3: 13) 불상이(3: 21) 불상이(4: 32)
- 語根末음이 ㅈ…………이러듯시(이렇듯이, 4: 47)

以上에서 보면 語根末음이 母音 ㅁ의 경우에는 接尾辭 ‘-히’만이, 語根末음이 ㄱ ㄴ ㅅ의 경우에는 接尾辭 ‘-히 -이’가, 語根末음이 ㄷ ㅈ의 경우에는 接尾辭 ‘-이’만이 쓰여 있다. ㄷ받침의 경우 接尾辭 ‘-이’만이 붙어 쓰인 것은 敬信錄諺釋의 경우와 一致한다.

- 2.8. 現行 맞춤법에서 한 單語 안의 두 母音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는 舌側音 ‘ㄱ’은 ‘ㄱㄱ’로 적기로 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ㄱㄴ’ ‘ㄱ ㄴ’ 表記가 뒤섞여 있다.

길넛노라(1: 50) 게얼니(1: 7) 놀나(1: 19) 물니이니(1: 30) 물니치고(1: 62)  
 말니디(1: 12) 울나가더라(1: 19) 울니라(1: 17) 홀너(2: 38) 길러(1: 48)  
 게얼리(1: 47) 놀리고(1: 58) 닐러(1: 19) 말린대(1: 60) 썰리(1: 66) 살리  
 쇼서(1: 33) 열리는디라(1: 54) 흘려(1: 29) 흘릴(1: 22)

- 2.9. 現行 맞춤법에서 ‘한 單語 안의 두 音節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는 ㄴ은 ㄴ소리는 아래 音節의 첫소리를 ㄴ소리로 적는다’고 規定된 것인데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表記되어 있다.

밋부게(1: 7) 엇디(어찌, 1: 7) 붓그러워(1: 11) 맛당이(1: 18) 앓가(1: 56)  
 앓기디(1: 33) 맛고와(1: 45) 잇그러(1: 47) 맛비(1: 54) 뜻귀(笄, 1: 60) 늦  
 기미(1: 61) 어엿비(1: 66) 샷기(2: 12) 엿조오더(2: 15) 엿더호노(2: 35)……

이러한 表記는 訓正 制定 이후, 連綿히 이어 온 傳統的 表記法이다.

## 3

音韻論的인 觀點에서 이 資料를 다루어 보면 다음과 같다.

## 3.1. 口蓋音化

## 保守的 表記例

디하(地下) 황제(皇帝) 유증(追贈) 양성(長成) 응제(懲戒) 조배(子弟) 향음(鄉中) 양가(文家) 유야(晝夜) 천성(天性) 맛도흔 디날계 석으니 락으니 티라하  
거닐 셔나디 불디 티고 맛디고 헤티고 현달티 어딜물

## 口蓋音化 表記例

하직(下直) 전염(傳染)  
굴치 갖치이매 맞쳐 밀치다 어진 사롬 조흔(좋은) 고치다.

## 口蓋音化 現象으로 因한 混錯表記例

( ) 안 表記는 當時의 正綴表記

양슈(장슈 將帥 2:22) 명식(경식 正色 2:27) 슈당(슈장 水漿 1:42) 딴동(진동 震動 1:54) 정계(整齊 4:12) 브레딜(브레질 1:11) 꾸디저(꾸지저 1:60)  
요희(요희 2:32) 더하여디이다(더하여지이다 1:56) 요고만(요고만 4:54)

敬信錄諺釋에서는 固有語의 경우는 모두가 口蓋音化(‘도흔’과 같은 例外表記가 있으나) 되어 나타나 있음<sup>6)</sup>에 比하여 이 五倫行實圖에 있어서는 保守表記例가 勝한 듯하며 또한 漢字音이나 固有語표기에 있어 口蓋音化現象으로 因한 混錯表記例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이 다르다.

## 3.2. 頭音法則으로 語頭에서 ㄹ子音 廻避

敬信錄諺釋에 현저한 頭音法則으로 語頭에서 ㄹ子音 廻避 表記例가 이 五倫行實圖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同年代 문헌인 增修無冤錄諺解(1792년)에 保守的表記가 철저한 점과 相通한다.

## 3.3. 硬音表記例

近世語文獻에 이르러 硬音化된 것으로 이 책에서도 硬音表記로 된 것에는

6) 拙著「國語學研究」“敬信錄諺釋研究” p. 65.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작가(2: 30) 「작가 버리고 <馬解下 69> 작가 殺하고 <武藝圖譜 17>  
 쓴처(2: 8) 쓴처<朴解上 35>  
 쓴흐니(2: 12) 「쓴케<重內訓 2: 61> 쓴홀결絶<倭解下 36> 쓴흐며<敬信錄 18>  
 쓴허<字植 1>」  
 쓰자(4: 55)  
 땡땡이(2: 24) 「땡<老解下 48·朴解上 19>」  
 슬씨고(3: 58)  
 석으니(1: 33) 락으니(2: 33)  
 쓰괴(敗, 1: 29)

漢字 ‘變’은 ‘향’으로 硬音表記로 되어 있으나 ‘氏’는 ‘씨’ 아닌 ‘시(니시 李氏 3: 38)’表記로 되어 있어 敬信錄諺釋<sup>7)</sup>의 경우와 같다.

### 3.4. \>ㅏ

中世語文獻이면 ‘\’로表記되어 있을 것이 ‘ㅏ’로表記되어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갇초미(4: 57 <갇초다 <ㅏ초다)<br>
 낱고(4: 42 <낱다)<br>
 다라가(2: 75 <드라가)<br>
 다로아(2: 75 <드로아)<br>
 바람(風 1: 44 <바롬)<br>
 빈람(風 1: 5 <빈롬)<br>
 빈람벽(壁 2: 61 <빈롬)<br>
 자물쇠(4: 31 <즈물쇠)<br>
 칼날(5: 25 <날)<br>
 함의(함께 2: 72 <롬쇠 <훈며)</p>
</div>

특히 語頭에서의 \>ㅏ例는 敬信錄諺釋에는 미치지 못하나 生産的인 편이라 할 수 있을듯 하고 \>ㅏ 現象에서 오는 混錯表記例도 보인다.

갇가온(4: 50 ←갇가온)<br>
 날(日 5: 4 ←날)<br>
 머리(頭 4: 49 ←마리)</p>
</div>

7) 拙著「國語學研究」“敬信錄諺釋研究” p. 67.



3.5. 圓脣母音化<sup>8)</sup>

## 保守的 表記例

은득 낙물과 물 뜨어슬 물고져 으슴 학물며 브락며 더브러 포의세 브더 니을  
 풀(草) 베프러 녕물(靈物) 기물(器物) 지물(財物) 제물(祭物) 불초(不肖) 을  
 힘(不幸) 북신(北辰) 북두성(北斗星)

## 圓脣母音化 表記例

·물의 풀고 우엇항리오 세우러 비 물러 물에 풀근(赤) 부르코(唱) 부어(酌) 풀  
 (草) 풀고(解) 대수풀 불령(不佞) 온불해(殷不害) 성품(性品)

保守的 表記例도 상당수 나타나 있지만 17C末에서 18C中期에 걸쳐 圓脣母音化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9)</sup>

## 3.6. 陰性母音化

우리말에 있어 둘째音節 以下에서 陰性母音化 현상은 두드러진데 體言과 토, 用言의 語幹과 語尾 사이에 나타나는 >—에 대해선 論及을 略하고 그 밖의 경우의 陰性母音化 例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낙물(1:9) 사물(1:62) 고물(1:27) 사슴(1:27) 막물(5:9) 마을(司, 1:39)  
 브르코(3:33) ㅍ룩학물(3:56) ㅍ르치니(1:9) ㅍ르니(1:43) 다드르니  
 (1:33) 학물며(1:65) ㅍ야호로(2:5)

ㅣ>—

회고(1:43)  
 가려덤불(3:50) 아회(3:50) 조회(2:50) 혼의(4:38) 모귀(1:53) 노회  
 여(4:36)

ㄴ>—

나무(2:32)

니>—

나귀(1:42) 가마귀(1:66)

8) 拙著「國語學研究」敬信錄註釋研究 pp. 97~98.

9) 拙稿「近世語研究」一樂善齋文庫新資料를 중심으로 拙著 國語學研究 p. 28.

특별한 例로 ‘거뜰니는(←마뜰니는, 같은 이는 3:62)’의 \>니로 敬信錄諺釋의 ‘히물며’ 例와 對比된다.

上例中 ‘나무, 나귀, 가마귀’ 例는 敬信錄諺釋의 ‘나무, 마루, 샤마귀’ 와 함께 陰性母音化의 귀한 例다.

## 4

形態論的인 觀點에서 이 資料를 다루어 보면 다음과 같다.

## 4.1. 體言의 添用(曲用)

## 4.1.1. 主格助辭 가

늪<sup>ㅇ</sup>가 제 어민 줄 모로더라(4:57)의 唯一例가 보인다.

## 4.1.2. ㅇ添用語의 ㅇ添用(曲用)例가 보인다.

겨<sup>ㅇ</sup>술에(1:2) 칼<sup>ㅇ</sup>을(1:5) 하늘<sup>ㅇ</sup>이(1:19) 고<sup>ㅇ</sup>을<sup>ㅇ</sup>을(1:32) 마<sup>ㅇ</sup>술에(1:56) 하늘<sup>ㅇ</sup>을  
(1:56) 풀<sup>ㅇ</sup>을(1:58) 하늘<sup>ㅇ</sup>에(2:42) 늪<sup>ㅇ</sup>이(刃, 1:31) 나라<sup>ㅇ</sup>의(2:45) 고<sup>ㅇ</sup>을<sup>ㅇ</sup>이  
(2:67) 들<sup>ㅇ</sup>이(2:70) 들<sup>ㅇ</sup>에서(3:6) 코<sup>ㅇ</sup>를(3:9) 천<sup>ㅇ</sup>으로(3:39) 술<sup>ㅇ</sup>을(3:49) 싸  
의 가(5:11) 길<sup>ㅇ</sup>을(15:15) 싸<sup>ㅇ</sup>에(5:17) 길<sup>ㅇ</sup>이(5:24) 길<sup>ㅇ</sup>로(2:57)

와 같은 것은 ㅇ添用語이던 것인데, 一般添用으로 바뀐 것이라 하겠으나

나라<sup>ㅇ</sup>히(1:4) 우<sup>ㅇ</sup>히(1:13) 길<sup>ㅇ</sup>히(1:18) 길<sup>ㅇ</sup>히서(1:18) 싸<sup>ㅇ</sup>히(1:50) 싸<sup>ㅇ</sup>를(1:  
62) 들<sup>ㅇ</sup>히(2:7) 나라<sup>ㅇ</sup>히(1:7) 우<sup>ㅇ</sup>호로(2:20) 나라<sup>ㅇ</sup>를(2:27) 나라<sup>ㅇ</sup>호로(2:60)  
들<sup>ㅇ</sup>을(3:13) 네<sup>ㅇ</sup>히(3:13) 코<sup>ㅇ</sup>히(3:21) 들<sup>ㅇ</sup>히(4:15)

와 같은 ㅇ添用例가 如前히 있다.

## 4.1.3. ㄱ添用語의 ㄱ添用例가 있다.

밭<sup>ㅇ</sup>기(밖에, 1:4) 남<sup>ㅇ</sup>기(나무가, 1:5)  
남<sup>ㅇ</sup>글(나무를, 1:16) 쥐<sup>ㅇ</sup>글(쥐구멍을, 2:12)  
남<sup>ㅇ</sup>기(나무에, 1:21)

4.1.4. 目的格助辭로는 ‘들·을’이 專用되다시피 하여 敬信錄諺釋의 경우와 一致한다.

후처물(1:2) 슬워물(1:2) 자리물(1:4) 연고물(1:5) 아버물(1:9) 어미물(1:9) 관리물(1:9) 포물(包, 1:11) 살기물(1:12) 소터물(1:13)……  
 아들물(1:2) 손물(損, 1:2) 궂품물(1:2) 말물(1:2) 음식물(1:4) 밭물(1:4) 곡식물(1:4) 낙물(1:4) 힘물(1:4) 칼물(1:5) 도적물(1:9) 사름물(1:9) 꽃물(1:9) 밭물(1:9) 거상물(1:9) 상복물(1:9) 손가락물(3:43)……

그러나, “부술(붓+을, 2:50) 뵈오술(뵈오+을, 1:5) 드른거술(것+을, 1:9) 그르술(그릇+을, 1:52) 뜨어술(뜨엿+을, 1:66) 모술(못+을, 2:1) 뵈빛출(뵈빛+을, 1:39) 뵈출(뵈+을, 1:33)……”

과 같이 ‘ㅅ·ㅈ’ 받침이 붙는 말에 ‘을’도 아닌 ‘을’토가 붙어 쓰임은 興味로운데 이 또한 敬信錄諺釋의 表記例와 同軌의 것이다.

4.1.5. 받침 없는 體言에는 ‘는’, 받침 있는 體言에는 ‘은’이 母音調和와 상관없이 專用되어 이 또한 敬信錄諺釋의 경우와 一致한다.

즈(字)는(1:3) 진효부는(1:6) 설포는(1:11) 노비는(1:12) 너는(1:12) 조아는(1:13) 나는(1:20) 왕부는(1:21) 허주는(1:27) 유검누는(1:35) 이는(1:37) 노조는(1:47) 땃희는(1:49)……  
 강혁은(1:9) 황향은(1:14) 명난은(1:16) 동영은(1:18) 왕상은(1:25) 반종은(1:32) 장승은(1:43) 서적은(1:51) 최누빅은(1:60) 스승은(1:65) 석작은(2:6)……

그러나 거순(것+은, 1:6)과 같은 特例가 있다.

4.1.6. 이른바 處格助辭로는 ‘에의에의’가 나타나나 ‘애’는 보이지 않으며 母音調和法則은 適用되어 있지 않다.

에……겨울에(1:2) 이에(1:4) 슬위에(1:5) 턴하에(1:5) 세시에(1:9) 세에(1:3) 후에(1:13) 구세에(1:14) 자리에(1:15) 향니에(1:27) 혼돌니에(1:19) 뱀흠에(1:21) 삼공에(1:25) 열흘에(2:29) 댁음에(1:29) 몸에(1:29) 손에(1:30) 네에(1:35) 텃위에(1:39) 길거리에(1:39) 빈소에(1:43)……

이……오서(1:2) 옷기서(2:50) 곁히(1:27) 우히(1:29) 딱히(1:32) 밋히(1:43) 밧히(1:44) 알피(1:44)……

의……후의(1:4) 세상의(1:7) 물의(1:13) 도셔의(1:16) 무덤의(1:21) 대수풀의(1:23) 죽기의(1:29) 집의(1:35) 니레란의(1:42) 세의(1:42) 너막의(1:43)……

에……의에(3:72)

特記할 점은 ‘에’가 絶對的이어서 中世語 文獻 같으면 ‘애’나 ‘예’일 것이 ‘에’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예’의 例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점은 敬信錄諺釋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4.1.7. 이른바 所有格(冠形格) 助辭는 ‘의’가 專用되어 現代語와 같이 되었으나 特例가 눈에 띈다.

민손의(1:2) 중유의(1:3) 놈의(1:7) 장숙의(1:16) 영의(1:19) 스마쇼의(1:21) 사롬의(1:27) 아전의(1:39)……

‘오시 썩를(1:25)’과 같은 特例가 나타나 있어 ‘이’의 遺痕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후공에 위히 바들 거시오 2:20  
강보에 아히는 3:65

의 例는 稀貴하게 現代語에 있어서 口頭語로 발음되는 所有格例를 보이고 있다.

## 4.2. 用言의 活用

4.2.1. 中世語 文獻에서 特殊한 活用形을 보이던 ‘있다(有)’가 敬信錄諺釋에는

이스매 이스물 이슬지라도 이스리니 이스면 이슬시……

와 같은 活用形을 보여 現代語로의 接近을 보이고 있으나 이 五倫行實圖에서는

이시면(1:2) 이서(1:11) 이시매(1:25) 이서도(1:39) 이시니(1:54)

와 같이 中世語 文獻과 같은 活用形을 보이고 있으나 다만 插入母音이 들어가야 할 活用形이

이시물(中世語라면 이쇼물) 이시되(中世語라면 이쇼되) 이시려(中世語라면 이쇼려)로 되어 있다.

4.2.2. 中世語에서 冠變則用言은 ‘ㄷ’子音 위에서 반드시 ‘ㄹ’이 脫落된 形態로 나타나던 것인데 이 책에서도

우다가(1:5) 아디(1:7) 비되(1:9) 우더라(1:25) 비더니(17) 우더니(3:1:6) 디니(1:58) 밧드더니(1:66)

와 같이 例外가 없다. 이점 敬信錄諺釋에 比해 保守的이다<sup>10)</sup>

4.2.3. ‘웃다(笑)가 如前히 변칙활용례 ‘우어 쏘오더(3:41)’를 보여 敬信錄諺釋에 나타나는 ‘우으며’의 活用과 一致한다.

4.2.4. 現代語 ‘끝다 베풀다’는 語幹末音에 ‘ㄹ’子音이 添着하여 이른바 ㄹ변칙동사로 되었지만 본디 中世語에서는 오늘날 으변칙動詞와도 같은 活用을 하던 말이다. 그런데 敬信錄諺釋에서는

쓰으며(3a) 쓰어오지(76b)  
베프며(68a) 베퍼(61b)

와 같이 中世語의 活用形을 보이는 것과

쓰으러(5a) 쓰올며(66b)  
베플고(31b) 베프러(5a)

와 같이 語幹末音 ‘ㄹ’이 添着된 活用形이 混在하여 現代語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데<sup>11)</sup> 이 책에서는

쓰올며(2:73)  
베플고(5:13) 베프러(5:27)

와 같이 완전히 ㄹ添着例만을 보인다.

#### 4.2.5. 插入母音의 殘骸

이미 老乞大解에서 이른바 插入母音은 자취를 감추었는데<sup>12)</sup> 이 책에서는 若干의 殘骸를 보이고 있다.

로오더(1:4) 널오더(1:4)  
일커로더(5:22)

등이 그것이다.

10) 拙稿 敬信錄諺釋研究 拙著「國語學研究」p. 75.

11) 拙稿 敬信錄諺釋研究 拙著「國語學研究」p. 76.

12) 拙稿「翻譯老乞大解題 老乞大下」p. 7. 仁荷大附設人文科學研究所